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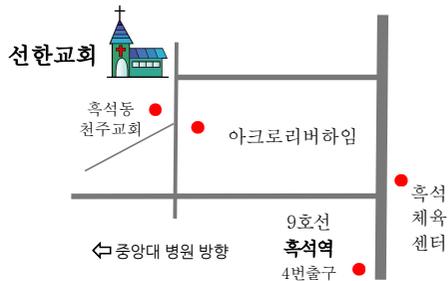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1부 주일 오전 9:30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00	남전도회 오후 2: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바 울 회 오후 2:00
<b>오 후 예 배</b>	주일 오후 3:30	청 소 년 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7:30	비 전 위 십	오후 2:00	에스더회 오후 2:00
<b>금 요 기도 회</b>	금요일 저녁 8:3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b>셀 가족 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b>담 임 목 사</b> 임 춘 배	<b>국 내 선교 사</b> 오 인 숙, 한 배 선
	교육목사 정 용 준	<b>협 력 교 회</b>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b>은 퇴 장 로</b>	고 상 돈, 김 대 희	<b>해 외 협력 선교 사</b> 이금춘, 조나단, 김만조
	박 희 태, 유 신 웅	
	조 윤 익	
<b>장 로</b>	이 태 수 (집사장)	<b>관 리 장 로</b> 손 석 규
	박 영 근, 윤 호 중	<b>500/50 교 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편 도 선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기원	인도자
찬양과경배	14장 (통일찬송가 30장)
교독문	교독문 3번 (시편 4편)
찬양과경배	520장 (통일찬송가 257장)
기도	박영근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말씀봉독	디모데후서 1장 6~9절
설교	<b>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b> (임춘배 목사)
헌금	헌금송: 최영석 집사
환영 및 광고	인도자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부르심
축도	임춘배 목사
성도의 교제	다함께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 (시 34편 1~10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배안내**
  - 1) 오늘 주일 예배는 1, 2부만 있습니다.
  - 2)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3) 23일(월)~24일(화) 새벽예배는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4) 교회현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사무처리회**

다음 주일(29일) 11시 예배 후에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수련회**

1월 28일(토) 오전 11시.  
1층 안디옥실에서 운영위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 제헌신예배**

1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는 제직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기부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는 명절이 되도록.

찬송 :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통 206)

본문 : 출애굽기 33장 14~19절

말씀 :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일생은 다양한 상황에 접하기도 하고, 훈련과 연단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환희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절망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며 죄를 짓는 상황을 배경으로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첫째, 친히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시며 함께 계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그분의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였습니다. 모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신과 함께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친히 가리라'입니다. 이 응답이 얼마나 든든한가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낙심되며, 절망의 구렁에 빠진 그 순간에도 항상 함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응답의 내용이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급하기도 민망하지만, 타락과 반역을 계속하며 모세를 괴롭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배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평안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은 가고 오는 모든 시간을 통틀어 주시는 평안입니다. 기도하며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국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또 19절에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가정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딤후 1:6~9)

서 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1. 복음을 위해 사는 삶

(1) 약하게 하는 것들: 두려움(7절), 부끄러움(8절), 고난(8절)

(2)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①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6절)

②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7절)

본 론

③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8절)

④ 부르심에 응답하라(9절)

## 2. 교훈

(1)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2)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복음을 위해 살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 론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편도선 장로
오후예배 기도		김미숙 권사
주 방 봉 사		루디아회

매일 Q.T.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망설임 없는 헌신	날짜 : 1월 23일
찬양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본문	사무엘상 1:19~28		
말씀요약	때가 이르자 한나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제물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니다. 자신이 기도하며 구한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겠다고 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목상질문 1	사무엘을 낳은 한나 1:19~23 고대하던 아들을 낳은 후에 한나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씻어 주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사무엘을 바친 한나 1:24~28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에 감사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1장 22~23절 참된 서원의 출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아이가 젖을 떼면 하나님께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엘가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이루길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이렇듯 바른 서원과 그 서원의 이행은 하나님 말씀에 잇닿아 있습니다. 서원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이유는 내 열심히 만들어 낸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저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제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소서. 이로써 제 남은 생애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 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하나님의 응답, 한나의 헌신”	
찬양과 기도	예수는 나의 힘ियो (새 93)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대니얼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 요크 태생 선원의 생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겪는 일들을 읽으며 ‘내가 만약 무인도에 갇히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상상하곤 합니다. 주인공은 무인도에서 잘 버티며 생존하지만,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고 아플 때 돌보아 줄 누군가가 없는 상황에서 극도의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성경책을 읽습니다.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간은 절망 앞에 서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구원자가 될 만한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이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미국 격언에 “일단 배를 만나면 우리는 더는 기도하지 않는다. 위험이 과거가 되는 사이에 하나님은 잊히기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도, 고난의 때가 아니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난의 날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후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나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나요?		
말씀 나누기	사무엘상 1:19~28		
묵상포인트	한나가 임신한 것은 그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출산 후 한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며 그분께 바칩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키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전적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 가족과 함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20~22절)		
적용하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와 응답을 받은 후 나의 태도는 각각 어떠한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리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새 제사장을 부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날짜 : 1월 27일
찬양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본문	사무엘상 3:1~14		
말씀요약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 리가 부른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르실 때야 엘리가가 깨닫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 리가 아는 죄악 때문에 엘리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목상질문 1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3:1~9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세 번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는 평소에 어떻게 노력하나요?		
목상질문 2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3:10~14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엘리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선언을 보며 내가 교훈으로 삼을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3장 10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 번 부르시지만, 어린 사무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준비가 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죄로 물든 인간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 제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 되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게 하소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속히 돌이켜 용서받게 하소서.		

매일 Q.T.		기쁨으로 노래할 역전의 하나님	날짜 : 1월 24일
찬양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본문	사무엘상 2:1~11		
말씀요약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지키시고 악인을 잠잠하게 하시니 그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간 후, 아이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목상질문 1	기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 2:1~2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찬양했나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고백을 드릴까요?		
목상질문 2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함 2:3~11 하나님이 약자와 강자를 역전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2장 1절 하나님의 응답은 기쁨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곧 '여호와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한시적 기쁨에 인생의 달을 내리도록 현혹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추구할 영원한 기쁨은 오직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도 '여호와 안에서' 노래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붓'이 될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제 생명의 주인 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낮아진 자리에서도 높아진 자리에서도 처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늘 겸손하게 하소서.		

매일 Q.T.		예배를 섬기는 상반된 태도, 신실함과 불량함	날짜 : 1월 25일
찬양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본문	사무엘상 2:12~21		
말씀요약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 후 고기를 삶은 때 솥에 갈고리를 넣어 걸리는 것을 차지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목상질문 1	엘리 대제사장의 악한 아들들 2:12~17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떤 태도로 대했나요? 교회 직분을 자기만족이나 야욕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목상질문 2	신실하게 섬기는 한나와 사무엘 2:18~21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 사무엘과 그를 지원하는 한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신실함으로 섬길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2장 17~18절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 데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깁니다. 영적 암흑기의 특징은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코람 데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엘리 아들들의 불경건한 행실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며 저와 다음 세대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악행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어떤 죄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을 멸시한 죄, 두려운 심판 선언	날짜 : 1월 26일
찬양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본문	사무엘상 2:22~36		
말씀요약	엘 리가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꾸짖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이게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 표징이 되고,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아버지의 질책을 무시하는 아들들 2:22~26 엘리 아들들의 죄와 엘리의 죄는 각각 무엇인가요? 우리 가족에게서 단호하게 끊어 내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하나님의 심판 선언 2:27~36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주신 은혜, 그리고 심판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내가 당연히 하며 잊었던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2장 26절 이상적인 신앙은 연수가 더할수록 '은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히,토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안르들은 행실이 나쁘고, 죄를 나무라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해 '좋지 아니하니라'(24절. 히, 로 토바)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 연수는 쌓여도 삶의 변화가 없고 영적 불균형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에 은총의 향기가 덧입혀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정돈할 때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축복이 제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함과 경건함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앞세우는 삶이 되게 하소서.		